

## “잃어버린 20년” 일본경제에서 배워야 할 교훈

권혁욱

### 1. 일본경제문제에 대한 진단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로부터 일본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장 주목받던 일본경제가 왜 갑자기 쇠락과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최초의 10년간의 연구들은 일본경제 문제의 원인을 은행의 부실채권문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손상, 기업의 대차대조표 훼손, 그리고 불황에 의한 민간투자의 감소와 같은 수요요인에서 찾았다. 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 일본경제는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대차대조표의 개선을 이루었지만 경제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Hayashi and Prescott(2002)는 일본경제의 문제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상승률의 하락과 같은 공급 측의 구조적인 요인에 있음을 보였다. 이후 생산성상승률의 하락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실증연구들은 일본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의 하락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기업보다는 높은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기현상이 일어나 시장의 자연선택 매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았고,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시장경제기능의 약화’에 기인한다는 가설이다[Nishimura, Nakajima, and Kiyota(2005), Fukao and Kwon(2006)]. 둘째, 은행이 부실채권문제를 표면화하지 않기 위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대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대출과 금리감면을 실시

하여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기업을 연명시켰기 때문이라는 소위 ‘좀비기업가설’이다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 셋째, 90년대 미국의 생산성 상승을 견인했던 ICT 투자가 일본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ICT투자 과소 가설’이다[Fukao, Kim, and Kwon(2012)].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

버블붕괴 이후의 일본경제의 정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으로 대응을 했다. 그런데 1996년에 일시적인 회복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1998년의 아시아금융위기로 경제가 더 악화되자 다시 금리를 제로로 하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해소하려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의 실시로도 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고, 금리하락으로 민간의 투자가 증가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고이즈미정부가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예로는 ICT 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개혁,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우편사업과 도로공단의 민영화, 노동자 파견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효과가 발휘되기 전에 엔화의 약세로 인한 수출의 증가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일본은 전후 가장 긴 경기호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외수주도의 경기회복의 기간 동안에 기업은 근본적인 조직개편과 개혁보다는 고용의 삭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Jobless Recovery’ 현상이 일어났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이 역설적이게도 큰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지연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세계경제위기와 지진으로 인한 대재난을 만나서 외수주도에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수출기업들의 업적이 하락하게 되면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90년대의 초반의 정책기조로 돌아간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재생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처럼 아직 실물경제의 호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정책의 실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 경제에 해답이 될 수 없음은 잃어버린 10년간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 3.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일본이 20여년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답으로는, 어떤 일어난 결과가 시간적으로 떨어진 어떤 일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의 일본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종신 고용제, 연공임금제, 기업별 노조로 이루어진 노동시스템과 기업간의 수직계열화로 대표되는 생산시스템, 그리고 주거태 은행제도와 같은 자원배분시스템이 유효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의 의존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ICT와 기술의 디지털화)과 이머징 시장출현과 같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ICT와 기술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벤처 캐피탈과 수평분업이 어우러져 기존의 대기업에 속한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90년대 이후에도 세계적인 기업(Google, Amazon, eBay, Facebook 등)들이 계속 만들어져 새로운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제, 연공임금제, 기업별 노조와 보완성을 갖는 수직계열화와 주거태 은행제도를 고수하여 기존의 대기업에 속한 엔지니어들에게 기업내부의 틀 안에서만 개선, 개량하는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미국과 같은 현상, 즉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경제의 미래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빠르게 전환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 4. 일본의 실패에서 얻어야 할 교훈

한국경제시스템은 세계에서 일본경제시스템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일본경제의 실패를 답습해 갈 위험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은 일본과 같은 노동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 때 퇴출한 재벌과 기업들은 많지만, 그 기업들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군의 등장을 보지 못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가진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출현하지 않고, 현재의 독과점 구조로는 일본처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없다. 가능한 빨리 유효성을 상실한 경제시스템을 버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노동, 생산, 자원배분의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그리고 교육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경제의 침체가 1993년 자민당 정권의 붕괴 이후에 일본에서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어진 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일본 니혼 대학 경제학과 교수

주소 : 101-8360) 東京都千代田区三崎町1-3-2 日本大学 経済学部

전화: 81(03) 3219-3471

팩스: 81(03) 3219-3471

E-mail: kwon.hyeogug@nihon-u.ac.jp

#### 참 고 문 헌

Caballero, Ricardo J., Takeo Hoshi, and Anil K. Kashyap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 5, 1943-1977.

Fukao, Kyoji, and Hyeog Ug Kwon (2006): "Why Did Japan's TFP Growth Slow Down in the Lost Decade?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Firm-Level Data of

- Manufacturing Firms,” *Japanese Economic Review*, **57**, **2**, 195-228.
- Fukao, Kyoji, Young Gak Kim, and Hyeog Ug Kwon (2012) “Intangible Investment in Japan,” PPT prepared for the *OECD Workshop on Productivity*,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5-6 November 2012.
- Hayashi, Fumio, and Edward C. Prescott (2002): “The 1990s in Japan: A Lost Decad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 1206-1235.
- Nishimura, Kiyohiko, G., Takanobu Nakajima, and Kozo Kiyota (2005): “Does the Natural Selection Mechanism Still Work in Severe Recessions? Examination of the Japanese Economy in the 1990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8**, **1**, 53-78.

